

Q 복원에 관한 연구

-Q 6:24-26의 저주문을 중심으로-

박인희*

1. 들어가는 말

최근 Q의 서사성이 활발히 논의될 만큼 Q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그간 축적된 Q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연구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진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Q는 이미 한국에서도 김명수,¹⁾ 소기천²⁾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었고, 위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Q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하르낙(A. Harnack)⁴⁾ 이래 꾸준히 축적된 Q 본문 복원 작업이 토대가 된다. 1980년대 IQP의 출범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Q 복원 작업은 *Documenta Q, Critical edition of Q*(2000) 등의 출판으로 그 성과를 가시화했다.⁵⁾ 이것은 학자들에게 Q의 다양한 문학적 형태를 포괄하는 일관된 주제를 발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신약학.

- 1) 김명수, 『큐복음서의 민중신학』(서울: 통나무, 2009), 김명수, 『원시 그리스도교 예수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67-95; 김명수, 『초기기독교의 민중생명신학담론』(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126-166.
- 2)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개론』(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제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76-85.
- 3) 김형동, “마가는 Q를 몰랐는가?”, 『신약논단』 15:2 (2008), 341~376. 김재현, 『Q의 예수 이야기』(과주: 한국학술정보, 2009). 나요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Q 공동체의 자리 찾기: 예수전승과 공관복음의 교회론”, 『신약논단』 7 (2005), 85~103; 박인희, “Q의 서사적 특성과 Q 공동체” 『신약논단』 16:3 (2009), 745-788, 外 다수.
- 4) A. Harnack, *The Sayings of Jesus: The Second Source of St. Matthew and St. Luke*, J. R. Wilkinson, trans. (London: Williams & Norgate, 1908).
- 5) SBL산하의 Q Seminar (1983-1989), Q Section (1990-1995),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학회 International Q Project (1989-1996)의 활동은 Q 연구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증폭시켜왔고 연구는 Q 텍스트의 복원이라는 광범위한 성과를 이루었다. IQP의 데이터베이스는 *Documenta Q*로 묶여서 출판되었고 1990-1995년, 1996-1998년까지의 Q 재구성 연구와 교정본을 수록했다. 2000년에는 Q를 재구성, 그 본문과 복음서들의 대조해서 Critical Edition of Q를 출판했다. 이 출판은 Q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을 수렴하기 위해 되도록 주관성을 배제하고 Q 연구의 객관적 표준을 확립함을 표방했다. J. Robinson, P. Hoffmann, & J. Kloppenborg, (eds.), *Critical Edition of Q: A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견하게 했고,⁶⁾ Q에 내재된 역사적, 신학적 주제들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곧, 약 240구절,⁷⁾ 35단락으로 이루어진 Q 본문은 더 이상 분절된 말씀들의 총합이 아닌, 하나의 복음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Q는 발견된 문서가 아니며, 본문의 복원 내지 재구성도 완전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Q의 주요 연구자들은 연구사를 통해 검증된 부분들 즉, 마태와 누가의 이중 전승 대부분을 Q의 범위로 하며, 누가의 순서로 본문을 재구성한다는 데 합의한다. 하지만 이들은 Q의 구전 단계, 마가와와 중복 본문⁸⁾, 특수 자료 문제 등에 있어서 각기 다른 입장이다. 이것은 Q 연구가 안고 가야 하는 태생적 부담인 동시에 Q와 그것이 내포한 역사와 신학에 관한 새로운 지평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문 복원의 기본적인 과정과 원칙들에 대한 논의도 완결됐다고 보아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Q 분야의 탁월한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다. 특히 마태와 누가의 특수 자료 문제 중 Q와 관련성을 보이는 자료들을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차가 크다. 이 자료들을 Q의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입장과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있는데⁹⁾ 이에 따라 Q의 범위가 달라진다.

현재 Q와 관련되어 논란이 된 특수 자료 중에서 누가복음 6:24-26의 저주문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다.¹⁰⁾ 현재 IQP에서 복원한 Q 본문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그럼에도 Q의 주요 연구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그 문학적 양식에 근거해 Q에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 of Q (Minneapolis: Fortress Press,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0), lxviii. F. Neiryck, "The Reconstruction of Q", A. Lindemann, ed., *The Saying Source Q and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이외에도 재구성에 대한 최근 논의는 J. M. Robinson, *The Saying Gospel Q*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the History and setting of the Saying Gospel* (Edinburgh: T&T Clark, 2000), 55-111; F. Neiry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Logia: les paroles de Jésus - the sayings of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2); F. Neiryck, "The Symbol Q" *ETHL* 54 (1978), 119-25 참조.

6)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Leuven, Paris, Dudley: Peeters, 2005), 79-128;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The History and Setting of the Saying Gospel* (Edinburgh: T&T Clark, 2000).

7) Q 구절 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230-250개의 범주에 있다.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13; F. Neiryck, "the Reconstruction of Q", 58 참조.

8) 마가와 Q의 중복 본문은 시험 사회(Q 4:1-13/막 1:12-13), 바알세불 논쟁(Q 11:14-20/막 3:22-27), 선교 파송(Q 10:2-12/막 6:7-13), 표적을 구함(Q 11:16/막 8:11-13), 종말론 담화(Q 17:22-37/막 13장) 등 긴 단위와 겨자씨 비유(Q 13:18-19/막 4:30-32) 십자가(Q 14:27/막 8:34), 이혼(Q 16:18/막 10:11-12) 등 작은 단위의 구절들도 포함하여 30여 구절이다. 마가 중복 자료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54-60 참조.

9)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3-1에서 상술할 것임.

10) J. M. Robinson, "The Saying Gospel Q", *The Saying Gospel Q*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328.

포함시키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이 있다.¹¹⁾

이 본문은 이중 전승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가 이 본문의 언어들 자신의 축복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¹²⁾ 이미 이 본문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저주문 양식은 Q의 독특한 문학 양식으로, 누가 특수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아가 누가의 특성상 이 본문이 누가의 창작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이 본문이 원래 Q에 속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저주문의 포함 여부에 따라 Q본문 배후의 역사 사회적 정황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이중 전승의 범위 내에서만 Q 본문을 복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문 재구성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재구성의 일반적 전제

2.1. Q의 범위

처음 Q 가설이 발생할 당시에는 말씀자료(현재 Q에 해당)¹³⁾의 범위는 현재의 이중 전승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처음 두 자료설을 태동시켰던 바이쎈(C. H. Weisse)와 홀츠만(H. J. Holtzmann)에게 중요했던 것은 마가 우선설이었고 말씀자료는 그 논리적 결과물이었다. 바이쎈은 말씀자료를 쉘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의 주의 로기아(λογια)자료¹⁴⁾와 단순히 동일시켰고, 그 결과 현재 Q에 해당하는

11) D. Catchpole, *The Quest for Q* (Edinburgh: T&T Clark, 1993), 79-94; A. Jacobson, *The First Gospel* (Sonoma: Polebridge Press, 1992), 61. 클로펜보그의 경우 초기 연구와 후기 연구에 입장차가 있다. J. Kloppenborg, *Formation of Q, Trajectories in Ancient Wisdom Collect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172와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99. 비교. 김형동의 경우 이 본문의 예언 양식에 주목하고 거기 근거해서 기존의 지혜 양식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이 본문을 누락시킨 것을 비판하고 있다. “Q 축복 선언/(Q 6:20-34)과 화 선언/눅 6:24-26, Q 11)에 나타난 Q 형성의 신학적 특징”, 『서울 장신논단』 7 (1999), 86-108 참조.

12) 누가의 저주문에 사용된 παράκλησιν(6:24), πενήσετε(6:25)와 마 5:4 비교 μακάριοι οἱ πενθοῦντες, ὅτι αὐτοὶ παρακληθήσονται. Kloppenborg, *Q Parallels Synopsis Critical Notes & Concordance*, 26. 참조.

13) 중복 전승을 Q로 명명하게 된 기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J. Weiss가 1890년 “Die Verteidigung Jesu gegen den Vorwurf des Bündnisses mit Beelzebul”에서 Q를 상징적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F. Neirynck, “The Symbol Q”, *ETHL*, 54, 1978, 119-25; J. Robinson, F. Hoffmann & J. Kloppenborg, eds., xxvi, n. 29. 그 밖의 이론에 대해서는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참조.

14) 쉘라이에르마허(“Über die Zeugnisse des Papias von unsern beiden ersten Evangelin”, *TSK* 5, 1832)는 주의 말씀자료를 사도 마태가 모았고 마 5-7, 10, 13:1-52, 18, 23-25가 이 말씀자료의 적용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로기아 이론은 Q를 말씀자료로 보게 했지만, 두 자료설 자체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72-80; A. Jacobson, *The First Gospel* (CA: Polebridge, 1992), 21.

내러티브들은 거기 포함되지 않았다. 바이쎄는 이중 전승 중에서 술라이허마허의 말씀자료에 적합하지 않은 본문들, 즉 요한의 설교, 시험 사화, 백부장 사화 등은 원 마가로 소급시켰던 것이다.¹⁵⁾ 그를 계승한 홀츠만은 원 마가의 범위(홀츠만에게는 A자료)를 더욱 확장했기 때문에 Q가 누가복음 7:18-35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¹⁶⁾ 바이쎄가 술라이에르마허의 로기아 이론의 영향 하에 말씀자료의 범위를 정했다면, 홀츠만은 마가의 내러티브와 Q의 말씀자료라는 양대 구도의 기원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Q의 형태는 베른레(Paul Wernle)에 와서야 갖추어졌다. 그에 의해 Q는 마태와 누가의 이중 전승이며 별도의 전승사가 있고, 마태와 누가에게 개별적으로 전수된 자료라는 개념이 수립되었다¹⁷⁾ 그리고 하르낙(A. Harnack)은 이러한 이중 전승의 범위에서 언어 일치 정도를 기준으로 Q의 형태를 복원했던 것이다. 1960-1970년대 Q를 재구성했던 술츠(S.Schulz)와 쉤크(Schenk), 뤼어만(Lührmann), 폴락(A. Polak) 등, 주요 학자들도 마태와 누가에 나타나는 이중 전승의 대부분을 Q의 범위로 간주했다.¹⁸⁾ 물론 90년대 이전까지의 학자들 간의 재구성 방법이나 재구성의 표기법은 각기 달랐고 그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Q 분야의 전문가들은 마태와 누가 이중 전승의 대부분을 Q의 범위로 인정한다.

마태와 누가 이중 전승의 특징은 언어적 일치 정도가 높다는 데 있다. 이중 전승의 일치는 마가와 삼중 전승보다 훨씬 높는데 그 언어적 일치 정도가 90%를 넘는 본문도 상당수 있다. 아래와 같은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는 누가 본문의 64단어, 마태의 63단어 중 60단어가 일치한다.

누가 3:7-9

γεννήματα ἐχιδῶν, τίς ὑπέδειξεν ὑμῖν
φυγεῖν ἀπὸ τῆς μελλούσης ὀργῆς;
ποιήσατε οὖν καρπὸς ἀξίους τῆς

마태 3:7-10

γεννήματα ἐχιδῶν, τίς ὑπέδειξεν ὑμῖν
φυγεῖν ἀπὸ τῆς μελλούσης ὀργῆς;
ποιήσατε οὖν καρπὸν ἄξιον τῆς

15) 바이쎄는 1938년 이론에서는 이 부분이 원래는 주의 말씀과 비유였는데 내러티브화 되었다고 주장하다가 1856년에는 그의 이론을 수정해서 이 내러티브 부분들이 원 마가에 속하는 것이라고 바꾸었다. C. H. Weisse, *Die evangelische Geschichte Kritisch und philosophisch bearbeitet*, 1838;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298-309에서 재인용;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Edinburgh: T&T Clark, 1996), 44 참조.

16) H. J. Holtzmann, *Lehrbuch der historisch-kritischen Einleitung in das Neue Testament*, 1886; *Ibid.*, 300-309에서 재인용.

17) P. Wernle, *Die Synoptische Frage* (Tübingen: J. C. B. Mohr, 1899), 230;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44에서 재인용.

18) 예외적인 구절에 대해서는 Neiryne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35-41 참조.

μετανοίας

και μη ἄρξησθε λέγειν ἐν ἑαυτοῖς·
πατέρα ἔχομεν τὸν Ἀβραάμ.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δύναται ὁ θεὸς ἐκ τῶν λίθων
τούτων
ἐγείραι τέκνα τῷ Ἀβραάμ.
ἤδη δὲ καὶ ἡ ἀξίνη πρὸς τὴν ρίζαν
τῶν δένδρων κείται· πᾶν οὖν δένδρον
μὴ ποιῶν καρπὸν καλὸν ἐκκόπτεται
καὶ εἰς πῦρ βάλλεται.

μετανοίας

καὶ μη δόξητε λέγειν ἐν ἑαυτοῖς·
πατέρα ἔχομεν τὸν Ἀβραάμ. λέγω γὰρ
ὑμῖν
ὅτι δύναται ὁ θεὸς ἐκ τῶν λίθων τούτων
ἐγείραι τέκνα τῷ Ἀβραάμ.
ἤδη δὲ ἡ ἀξίνη πρὸς τὴν ρίζαν
τῶν δένδρων κείται· πᾶν οὖν δένδρον
μὴ ποιῶν καρπὸν καλὸν ἐκκόπτεται
καὶ εἰς πῦρ βάλλεται.

이중 전승에는 이와 같이 높은 언어 일치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눅 11:19-20/마 12:27-28에서는 누가 37개, 마태 37개의 단어 중 35개가 일치한다. 또 눅 4:9-12/마 4:5-7에는 각기 사용된 63, 61의 단어 중 49개가 일치한다. 그런가 하면 눅 9:58/마 8:20에 각기 나오는 26개의 단어 중 하나만 다르고, 눅 11:23/마 12:30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한 15개의 단어 모두가 같았다.

역으로 이런 일치 현상을 Q의 존재를 반대하는 데 사용한 굴더(Goulder)와 같은 학자도 있다. 누가가 마태를 직접 참조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일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가 마태의 중요한 주제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¹⁹⁾

그런데 Q의 범위에 속하는 이중 전승 모두가 높은 언어적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마태와 누가가 개별적으로 Q의 본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두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중 전승들의 어휘나 어순, 구절 단위로 많은 차이가 있다. 마가와 중복되는 바알세불 논쟁(Q 11:14-23)의 경우, 마가와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는 높은 언어적 일치가 Q 재구성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마나 비유(Q 19:12-26)의 경우는 언어적 일치의 정도가 10%에 불과한데 이것은 마태가 마가와 Q를 융합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축복 담화의 경우에는 언어상의 일치 정도는 50%가 되지 않지만, 두 본문의 전체 맥락에서 일관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이중 전승의 높은 언어적 일치가 Q의 범위가 되는 이중 전승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언어적 일치만을 Q 재구성의 절대적 기준을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9) 누가와 마태가 공동으로 사용한 마가 자료 중에서 마가에 부가한 마태 자료의 중요한 부분들(마 12:5-7, 14:28-31, 16:16-19, 27:19,24)을 누가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누가가 마태를 직접 인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8-9; Burnett Hillman Streeter,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London: Macmillan & Co Ltd, 1961, 1924), 183 참조.

이러한 복잡한 논의 중에서도, 학자들은 이중 전승에 속하면서 마가의 본문과 독립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본문의 대부분을 Q의 범위로 인정했다.²⁰⁾ 다음 본문들은 Q의 재구성에서 포함할 수 있다고 합의된 최소한의 Q의 범위들이다. 장절의 구분은 누가의 것을 따른다.²¹⁾

Q 3:7-9, 16-17; 4:1-13; 6:20b-21, 22-23, 27-33, 35c, 36-37b, 38c, 39-49; 7:1-2, 6-10; 7:18-19, 22-23, 24-28; 7:31-35; 9:57-60; 10:2-12, 10:13-15, 16; 10:21-22, 23b-24; 11:2b-4, 9-13; 11:14-20, 23, 16; 11:24-26; 11:29-32; 11:33, 34-35; 11:39-44, 46b-52; 12:2-7; 12:8-9, 10, 11-12, 22b-31, 33-34; 12:39-40; 12:42b-46; 12:49, 51-53; 12:54b-56; 58-59; 13:18-19, 20-21; 13:24-27; 13:28-29, 30; 13:34-35; 14:16-24; 14:26-27; 14:34-35; 15:4-7; 16:13; 16:16, 17, 18; 17:1-2, 3b-4, 6b; 17:23, 24, 26-27, 30; 17:33, 34-35, 37b; 19:12-13; 15b-26; 22:28-30

2.2. Q의 순서

Q의 범위와 함께 그 순서는 Q 재구성에 결정적이다. 현재 재구성에서는 로빈슨의 제안대로²²⁾ 누가의 장, 절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미 이전에도 대부분의 Q 연구자들은 누가의 순서를 따랐지만 장, 절의 구분 표시는 달랐다.

기본적으로 이중 전승의 많은 부분에는 마태와 누가의 공통된 순서가 나타난다. 마태와 누가가 이중 전승을 개별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순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Q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이중 전승의 전반부인 세례 요한의 설교(눅 3:7-9, 마 3:7-10), 시험 사화(눅 4:1-13, 마 4:1-11), 축복 담화(눅 6:20-49, 마 5:1-7, 27), 백부장 사화(눅 7:1-10, 마 7:28, 8:5-10, 13), 요한의 질문(눅 7:18-35, 마 11:2-19)과 마가와 중첩되는 선교 파송(막 6:7-13/Q 10:2-12), 바알세불 논쟁(막 3:22-30/Q 11:14-23), 중말론 논쟁(막 13/Q 17:23-37)에서 동일한 순서를 보였는데, 이 현상은 개별 본문들뿐만 아니라, 마태와 누가가 사용한 이중 전승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본문들도 많기 때문에 Q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순서를 보존한 본문을 선택해야만 한다. 여기서 절대다수의 학자들은 누가의 순서를 지지했다. 처음 홀츠만도 누가의 순서를 선택했지

20)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92.

21) F. Neiryck, "The Reconstruction of Q", 58; F. Neiry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37;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92.

22) J. Robinson, P. Hoffmann, & J. Kloppenborg, eds., *Critical Edition of Q*.

만, 스트리터(B. Streeter)와²³⁾ 테일러(Taylor)의 연구²⁴⁾는 누가의 순서를 우선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바실리아디스(P. Vassiliadis)가 마태가 셈어적인 유형을 헬라적 어법으로 조정하거나(마 12:43-45/ 눅 11:24-26) 마가의 본문과 Q의 본문을 융합(Q 10:2-12, 막 6:6-13)한 경우를 들어 누가의 순서를 지지했다면²⁵⁾, 클로펜보그는 누가와 마태의 순서가 일치되는 35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들에서 마태의 편집 과정을 밝힘으로써 누가의 순서를 지지했다.²⁶⁾ 그는 마태와 누가의 중복 전승에서 나타나는 순서상의 불일치는 마태가 Q를 꼼꼼히 살펴서 자기 의도에 맞추어 재배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누가가 원래 Q의 순서를 보존했다는 데 일치했다.

물론 예외적으로 누가보다 마태의 순서가 더 원래적이라고 간주되는 본문들도 있다.²⁷⁾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라기보다는 주로 한 단락 내에서 구절의 위치만 변경한 것이 대부분이다.²⁸⁾ 이런 예외적인 본문들을 제외하고 Q 재구성에서 순서는 누가의 순서를 따른다.

3. Q 재구성의 난제들

3.1. 특수 자료

대부분의 Q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기본 틀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자들이 Q의 범위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나이어링크(F. Neirynck)는 앞서 제시한 범위보다 더 축소해서 마가와 중복되는 Q 11:16(막 18:11)과 17:33(막 8:35)은 Q에서 제외했다. 그런 반면에 IQP에서는 문학적 개연성에 의해 보다 이중 전승의 범위를 확장해서 Q 3:2-3(πασαν περιχωρον του ιορδανου), Q 4:16 Ναζαρα 등을 새롭게 조합했다.²⁹⁾ 이와 같이 마가와 중

23) Burnett Hillman Streeter, *The Four Gospels*, 273-291.

24) Vincent Taylor, "The Original Order of Q", *New Testament Essays* (1959), 95-118;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46-47; J. Kloppenborg, *Formation of Q, Trajectories in Ancient Wisdom Collect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68-69.

25) P. Vassiliadis, "The Order of Q", *Logia: les paroles de Jésus - the sayings of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2), 382-384.

26) J. Kloppenborg, *Formation of Q*, 72-80.

27) J. Robinson, P. Hoffmann, J. Kloppenborg, *The Saying Gospel Q in Greek and English with Parallels from Gospels of Mark and Thoma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9-10.

28)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53-54.

복³⁰) 자료나 Q의 문학적 형태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Q 본문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보다 더 논란을 야기하는 본문들은 마태와 누가의 특수 자료에 해당하는 본문들이다. 이미 한 세대 전부터 바실리아디스(P. Vassiliadis)와 폴락(A. Polag)은 마태와 누가의 이중 전승만으로 Q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누가나 마태의 특수 자료 중에 Q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본문들은 Q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³¹⁾ 예를 들어 폴락은 마태복음 10:5-6, 23와 누가복음 9:61-62 등은 이중 전승이 아니라도 Q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바실리아디스는 구전의 가능성이 있는 눅 6:39, 40과 같은 구절은 Q에서 배제하고 누가복음 9:60-62, 10:19-20 등의 구절은 Q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³²⁾ 특히 바실리아디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특수 자료인 경우 Q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1) Q에 이미 속한 본문의 부분으로 보이는 구절의 경우, (2) 신학적으로 Q의 특징을 보이는 경우, (3) Q의 시골 생활을 반영하는 언어가 사용되었을 경우, (4) 복음서 저자들이 그 부분을 생략한 것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5) 복음서 저자들의 편집적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6) 누가의 여행 설화(눅 9:51-18:14) 중에서 발견된 경우.³³⁾

곧 이 여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 자료들은 원래 Q에 속했으나 누락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클로펜보그는 (1) 다른 Q 본문에 속한 경우와 (4) 생략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를 수용했고³⁴⁾ 터킷은 (3) 시골생활을 반영하는 경우와 (6) 누가의 여행 설화에 속한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의미 있는 기준이라고 보았다.³⁵⁾

만일 누가와 마태 모두 Q에서 생략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수 자료의 경우라면 충분히 Q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³⁶⁾ 많은 학자들은 누가와 마태의 특수 자료들이 Q에서 왔을 가능성을 배

29) J. Robinson, P. Hoffmann, & J. Kloppenborg, (eds.), *Critical Edition of Q*, 6-7; 보다 자세한 논의는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94-95; F. Neirynck, "The Reconstruction of Q", 73-76.

30) *Ibid.*, 58;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92;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69-71.

31) F. Neiryn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37,

32) *Ibid.*, 35-41.

33) P. Vassiliadis, "The Nature and the Extant of Q Document", *NovT*, 1978; J. Kloppenborg, *Excavating Q*, 95-100.

34) *Ibid.*, 95-96.

35)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95.

36) 눅 9:61-62의 특수 자료의 경우 마 8:21 ἔτερος ὅς εἰπεν은 이와 이중 전승을 이루는 눅

제하지 않았다.³⁷⁾ 그것은 마태나 누가가 마가의 자료를 생략하듯이 Q에서도 특정 본문을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의 본문 중 아예 누락시킨 본문이 있거나,³⁸⁾ 마태나 누가 중 한 저자만이 사용한 본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³⁹⁾ 곧 누가와 마태가 각기 마가를 취급한 것과 유사하게 Q를 취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사를 거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수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마 5:41, 10:5-6, 10:23, 11:28-30; 눅 4:16-30, 6:24-26, 9:61-62, 11:5-8, 12:13-15, 16-21, 12:49-50, 15:8-10, 17:28-29 등이다.⁴⁰⁾ 이러한 특수 자료에 해당하는 본문들 중에는 Q의 신학과 역사 해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본문이 있다. 눅 6:24-26의 저주문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3.2. 누가복음 6:24-26 저주문 분석

οὐαὶ ὑμῖν τοῖς πλουσίοις, ὅτι ἀπέχετε τὴν παράκλησιν ὑμῶν.(6:24)

οὐαὶ ὑμῖν, οἱ ἐμπλησμένοι νῦν, ὅτι πεινάσετε. οὐαὶ, οἱ γελῶντες νῦν, ὅτι πειθήσεται καὶ κλαύσετε.(6:25)

οὐαὶ ὅταν ὑμᾶς καλῶς εἴπωσιν πάντες οἱ ἄνθρωποι· κατὰ τὰ αὐτὰ γὰρ ἐποίουν τοῖς ψευδοπροφήταις οἱ πατέρες αὐτῶν.(6:26)

이 본문은 예수의 축복 담화인 Q 6:20-49을 재구성하는 이중 전송 중에서 누가복음 6:20-49의 일부이다. 축복 담화는 Q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의 본문 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결론적으로 Q 6:20-49의 축복 담화를 재구성함에 있어 IQP를 위시한 대부분 연구자들은 누가의 순서와 언어에 거

9:59 Εἶπεν δὲ πρὸς ἕτερον· 보다는 눅 61절의 (Εἶπεν δὲ καὶ ἕτερος·)와 더 유사하다. 즉 눅 9:61-62는 원래 Q에 속했지만 마태가 이 부분은 생략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J. Kloppenborg, *The Formation of Q*, 82-83.

37) F. Neirynck,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Logia*, 36-37.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94-96; J. Kloppenborg, *Excavating Q*, 95-101.

38) 누가와 마태 양자 모두 생략한 마가의 자료로는 예수가 귀신들렸다는 말(마 3:30), 소경 치유 사화에서 에바다에 대한 언급(7:34) 등이 있다.

39) 일레로 마가의 본문 중에서 마태는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자 이야기(막 1:21-28/눅 4:31-37), 누가는 세례 요한에 설명(막 1:4-6/ 마 3:4-6) 부분을 누락시켰다.

40) 이에 반대하는 이론으로 H. Fleddermann,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73-74 참조; 반면 클로펜보그는 누가의 특수 자료는 모두 Q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다. J. Kloppenborg, *Excavating Q*, 95-100; 터킷은 이론적으로 일부 특수 자료들이 Q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본문이 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았다.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96.

의 의존했다. 그것은 마태의 본문이 누가보다 편집적 흔적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태 산상수훈의 운유, 궁휼, 자비 등의 주제는 마태 기독교론의 특성을 반영한다. 반면 누가의 축복 선언은 특별히 분류된 흔적이 없이 2인칭으로 지속된 하나의 연설 형식으로 특별한 편집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Q 본문을 복원하면서 학자들은 확장된 마태의 산상수훈보다는 누가의 간단한 축복 선언을 선택했고, 이후 이어지는 담화도 누가의 순서에 의존했다. 그럼에도 누가복음 6:24-26의 저주문은 재구성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본문이 마태의 산상수훈에는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IQP에서 출판된 Q 본문에 6:24-26의 저주문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 만큼 이 본문을 누가의 편집으로 보는 경향이 다수이다.⁴¹⁾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6:24-26의 저주문 양식은 누가의 특징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태의 산상수훈이 마태의 편집적 특징을 나타낸다.⁴²⁾ 그렇다면 먼저 마태복음 5-7장의 산상수훈에 나타난 마태의 편집적 의도와 특징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3.2.1. 마태복음 5-7장과 비교

마태의 산상수훈 또는 누가의 평지 설교에 해당하는 이중 전승은 Q 본문 중 누가와 마태의 일치 정도가 낮은 부분이다.⁴³⁾ 그 만큼 이 본문은 한 쪽의 편집이 많이 이루어진 본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마태의 축복문인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은 “의($\delta\iota\kappa\alpha\iota\omicron\sigma\acute{\upsilon}\nu\eta$)”이다. 이 말은 마태의 산상수훈과 설교 본문(5-7장)에 7번이나 반복된다. 마태의 팔복은 누가의 본문과 유사한 5:3, 4, 6, 11과 누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5:5, 7, 8, 9로 나뉜다.⁴⁴⁾ 그런데 이 양자 모두 마태가 강조하는 “의”라는 주제를 언급한다.

우선 첫 축복 선언인 가난한 자에 대한 축복에 마태는 “심령”이라는 말을 첨가했다. 이는 가난을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는 구약적 표현을 반영한다. 구약 전승에서는 이미 주전 2세기에 가난한 자라는 말에는 의로운 자라는 뜻이 내포되었다. 또, 가난한 자라는 말은 시편 69:29-36, 9편, 10편에서 볼 수

41) Robinson, “The Saying Gospel Q”, 328.

42) Kloppenborg, *Q Parallels Synopsis Critical Notes & Concordance* (Sonoma: California, 1988), 26.

43) Thomas Bergermann, “Q auf dem prufstand Die Zuordnung des MT/LK Stoffes zu Q am Beispiel der Bergpredigt”, *FRLANT*, 5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62, n. 13 에서 재인용.

44) 이 본문이 특수 자료가 아닌 마태의 편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 『신약논단』 2 (1996), 7-41;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I)”, 『신약논단』 3 (1997), 7-19 참조.

있듯 악인, 또는 교만한 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⁴⁵⁾ 곧 마태의 부가어인 “심령(τῷ πνεύματι)”은 이러한 구약적인 전승을 보다 분명히 하여 ‘가난한 자’라는 말에 함축된 “의”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⁴⁶⁾

5절의 온유한 자라는 말도 가난한 자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히브리어 ענין으로 이 말은 온유한 자와 중복 의미를 갖는다.⁴⁷⁾ 이런 식으로 마태의 주제인 “의”는 더욱 강조되는데, 이것은 6절에서도 반복된다. “의에 주리고 목 마른”이라는 표현은 원래 구약에서 잔치와 기근의 모티브인 ‘주리고 목 마른’을 반영한다.⁴⁸⁾ 마태는 이에 “의”를 부가함으로써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으로 바꾸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5:48)는 말로 집약된다. 즉 마태의 축복 선언은 구체적인 축복의 선포라기 보다는 의로운 사람의 온전함에 대한 일련의 가르침인 것이다.

한편 산상수훈에서 사용된 인칭에서도 마태의 편집적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누가의 본문에는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2인칭이다. 이는 어떤 구체적인 선포의 대상을 상징하는 원래의 구전 형태를 반영한다. 반면, 마태는 이를 3인칭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전통에서 축복문은 대체로 3인칭을 사용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μακάριος는 히브리어 מְקַרְיָם의 번역으로 동사는 대개 3인칭(시편1편)⁴⁹⁾인 점을 미루어볼 때 구약적 전통에 능한 마태가 원래적 형태를 변형했을 가능성을 보인다.⁵⁰⁾ 마태는 여덟 번의 축복 선언은 3인칭으로 바꾸었지만, 마지막 축복문은 2인칭 형태를 보존했다.⁵¹⁾ 때문에 원래의 2인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마태의 본문은 산상수훈에 이어 7장까지 예수의 가르침이 이어진다. 여기서 예수는 율법의 완성자로 제시된다(마 5:17). 산상수훈 이후의 말씀들의 경우도 주제별로 잘 정렬되어 있다. 마태는 우선 빛과 소금의 비유를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

45) T. W. Manson, *The Sayings of Jesus* (London: SCM press Ltd, 1949), 47; J. D. Pleins, “Poor, Poverty”, *ABD*, Vol. 5 (NY: Doubleday, 1992), 402-414. 참조.

46) E. 슈바이처, 『마태복음 I』,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6, 1976), 88.

47) 시 37:11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48) T. W. Manson, *The Sayings of Jesus*, 47.

49)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 『신약논단』 창간호 (1995), 56. 그러나 2인칭으로 사용된 예도 있기 때문에 신 33:29, 사 32:20 반드시 3인칭이 원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H. 마살, 『누가복음』,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78), 325-326.

50) 이런 관점에서 맨슨, 디벨리우스 등은 모두 누가의 2인칭이 더 원래적이라고 보았다.

51) μακάριοι οἱ δεδιωγμένοι ἕνεκεν δικαιοσύνης, ὅτι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 μακάριοί ἐστε ὅταν ονειδίσωσιν ὑμᾶς καὶ διώξωσιν καὶ εἴπωσιν πᾶν ποιηρὸν καθ’ ὑμῶν [ψευδόμνητοι] ἕνεκεν ἑμοῦ. 누가의 경우 6:20에서 ἐστὶν이라는 3인칭형이 사용되었지만 ὑμετέρα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οῦ θεοῦ에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라는 명백한 2인칭과 함께 사용되었다. 반면 마태는 αὐτῶν ἐστὶν ἡ βασιλεία τῶν οὐρανῶν에서처럼 분명히 3인칭을 사용했다.

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당위를 제시하고, 예수를 율법의 완성자로 내세운다. 이어 주제별로 형제와의 화목,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보복 금지와 같은 규범들을 언급한 후, 원수 사랑으로 전체 담화를 마무리 짓는다. 이것은 단계마다 도입과 결말을 갖고 있는 주제별로 이루어진 작은 설교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권면과 설교를 목적으로 한 마태의 산상수훈에는 누가와 같은 직접적인 저주문은 필요하지 않았다. 대신 마태는 저주문의 언어를 그의 축복 선언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원래 Q의 저주문을 사용했던 흔적을 보인다. 곧 마태는 저주문에 사용된 *παράκλησιν*(6:24), *πειθήσετε*(6:25)를 자신의 축복문에 사용했던 것이다.⁵²⁾

이처럼 마태가 Q 본문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적절하게 사용한 뛰어난 저자라고 할 때 Q의 저주문도 마태가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그의 편집적 의도에 맞게 본문으로 흡수시켰다고 볼 수 있다.

3.2.2. 누가복음 6:24-26과 Q의 저주문들(11:39-47; 10:13; 17:1)

누가복음 6:24-26의 저주는 명백하게 부유한 자들을 향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누가의 편집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누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부유한 자들을 저주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누가는 부유한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대신,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방식을 선택했다(14:12-14; 16:1-9; 19:1-10). 누가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로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는데(눅 8:3), 이는 누가 공동체에도 어느 정도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누가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와 적대적인 논쟁을 벌이지 않고 대화 상대자로 등장하거나(7:36-40, 44; 13:31), 자주 이들의 집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온다(7:36; 11:37; 14:1). 심지어 누가에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의 중요한 선포가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다(눅 17:20-21).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Q의 저주를 확장하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일련의 긴 저주문(마 23:13-36)을 제시하는 마태와 현저히 다른 점이다. 이미 누가는 유대 갈릴리의 구체적인 역사 사회적 정황과 떨어져 있으며, 누가의 서술 방식 역시 포괄적이고 회고적인 역사 서술 방식이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누가의 서술 방식의 특징에 입각해볼 때,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적

52) Kloppenborg, *Q Parallels Synopsi Critical Notes & Concordance*, 26.

53) 누가의 역사 서술 방식에 관해서는 E. Pluemacher, “Luke-as Historian”, *ABD*, Vol. 4 (Doubleday, 1992), 397-402; C.K. Barrett, *Luke the Historian in Recent Study* (London: The Epworth Press, 1961); H. 마샬, 『누가복음』 참조.

대자로 삼는 것은 누가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다. 이를 입증하듯 누가의 다른 특수 자료에도 저주문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⁵⁴⁾ 따라서 이 본문(눅 6:24-26)은 누가의 편집이 아닌, 원래 Q에서 유래했다고 보아야 한다.

저주문은 Q의 독특한 문학 양식이다.⁵⁵⁾ Q에는 약 9개의 저주문이 들어 있다. Q 10:13의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한 저주, Q 17:1의 실족케 하는 자에 대한 저주, 그리고 Q 11:42-52에 집중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에 대한 저주문들이다. 누가복음 6:24-26의 저주문도 바로 이와 동일한 형태이다.

사토(M. Sato)에 의하면 Q의 저주문들은 구약의 예언 전승의 כִּלְמַת 저주문과 관련되며 고유한 예언전승의 특징을 나타낸다.⁵⁶⁾ 제이콥슨도 저주문 양식이 Q의 중요한 문학적 특징인 점을 강조하고, 6:24-26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클로펜보그도 초기와 달리 200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이 본문을 Q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⁵⁷⁾ 한편 캐취폴(D. Catchpole)은 6:24-26의 저주문이 앞서 나오는 축복 선언과 한 쌍을 이루는 것에 주목하여 이 본문이 원래 Q에 속했다고 주장했다.⁵⁸⁾ 곧 한 집단에 대한 축복과 그와 적대되는 집단에 대한 저주가 한 쌍으로 나오는 전통적인 구약의 전승에 따라(시 1:1-6; 146; 5-9; 잠 8:34-36; 28:14)⁵⁹⁾ 이 저주문은 앞의 축복 선언과 한 쌍을 이루므로 Q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6:24-26의 문학적 형태는 Q에 특징인 저주문 양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양식의 특징상 Q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학적 특성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Q 저주문들과 일관된 사회 저항적 특성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Q 저주문은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표상과 관련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 저항적 함의이다. 이것은 목시 문헌인 『에녹의 편지』(에녹1서 91-108)에 나타나는 저주문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에녹의 편지』에서 가장 특징적인 문학 양식은 저주 양식으로,⁶⁰⁾ 『에녹의 편지』에 해당하는 에녹1서 91장부터 100장 사이에는 24번 이상의 저주문 형식이 나타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저주문들에는 저주의 대상과 함께 저주받는 이유가 설명된다는 점이다. 이런 방식은 $\acute{\omicron}\tau\iota$ 를 사용하는 Q 저주문과 동일하다. 『에녹의 편지』에 나오는 저주문 중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⁶¹⁾

54) D. Catchpole, *The Quest for Q* (Edinburg: T&T Clark, 1993), 88.

55) A. Jacobson, *The First Gospel* (Sonoma CA: Polebridge, 1992), 63.

56) M. Sato, *Q und Prophetie* (Tübingen: J. C. B. Mohr, 1988), 194-198.

57) 클로펜보그의 경우는 *Formation of Q* (1987), 172와 *Excavating Q* (2000), 99 비교.

58) D. Catchpole, *The Quest for Q*, 87-94.

59) *Ibid.*, 87-94.

60) R. Piper, *Wisdom in the Q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8.

61) 이 구절들은 찰스워스(Charlesworth)가 영어로 번역한 에녹서 전문 중에서 발췌한 것(94:6

저주 받으라 불의와 억압을 짓는 자들아,
 저것의 기초를 놓는 자들아,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94:6).
 저주 받으라 죄로 집을 짓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초로부터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94:7).
 저주 받으라 부유한 자들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너희 재물에 믿음을 두었기 때문이다(94:8).

알려진 대로 『에녹의 편지』는 『에녹1서』 중에서도 비교적 연대가 이른 것으로 마카비 혁명을 전후해서 저작된 묵시문헌이다. 이 책은 에녹1서의 다른 책들보다도 저항의 성격이 강한 묵시문헌으로 알려졌는데,⁶²⁾ 그 내용이 의로운 자들에 대한 보상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⁶³⁾ 『에녹의 편지』에서는 저주의 대상은 한결같이 공동체의 연대를 깨뜨리는 불의한 자들로 억압자들과 부유한 자들이다. 이들은 이웃을 억압하거나 의로운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재물에 마음을 두고 높으신 분(하나님)을 잊는 자들이다. 바로 이러한 내용과 형식은 Q의 저주문과 공통점을 갖는다.

Q 11:37-52에는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들에 대한 저주가 집중되었다. 그런데, 최근 활발해진 갈릴리 고고학, 사회학을 참조할 때,⁶⁴⁾ 이들이 저주받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본문에는 당시 1세기 갈릴리의 사회사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표현도 들어 있는데,⁶⁵⁾ 예를 들어 여기서는 추상적인 마가의 표현과 달리 유대 전쟁 이전의 바리새파들의 관습을 상세히 언급되거나(Q 11:39)⁶⁶⁾ 십일조와 같은 당시 징세 구조가 언급되었다(Q 11:42).⁶⁷⁾ 최근 연구

Woe unto those who build oppression and injustice!...)이다. 찰스워스는 자신의 번역은 에티오피아 에녹서를 근간으로 하고 아람어 판, 헬라어 판을 함께 참조하여 번역했다고 밝히고 있다. J. H. Charlesworth, *The Old Pseudepigrapha*, vol. 1, ed. Duke Univers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83), 6, 72-98.

62)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John Bowden, trans.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581, 595-597; J. Charlesworth, *The Old Pseudepigrapha*, 5-12, 72-89; J. J. Collins, "Apocalyptic Literature", Robert A. Kraft and George W. E. Nickelsburg, eds., *Early Judaism and its Modern Interpreters* (Atlanta: Scholars Press, 1986), 268-278; C. Rowland, *Open Haven A study of Apocalyptic in Judaism and Early Christianity* (London: SCPK, 1982), 9-72 참조.

63) J. H. Charlesworth, *The Old Pseudepigrapha*, 72-99.

64) R. A. 호슬리,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박경미 역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7, 1996); J. Reed, "Social map Q", J. Kloppenborg, ed., *Conflict and Invention*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17-30;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166-178;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 56; R. A. Horsley & J. Draper, *Whoever Hears You Hears Me: Prophets, Performance, and Tradition in Q* (Harrisburg: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46-60 참조.

65) R. A. Horsley and J. Draper, *Whoever Hears You Hears Me*, 287.

에 의하면 서기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한 지배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⁶⁸⁾ 그리고 Q의 저주문은 이들이 갈릴리 유대 공동체의 약자들을 억압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요한 것은 눅 6:24-26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6:24-26의 저주의 대상은 지금 배부르고 웃는 부요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저주 받는 이유는 부유해서가 아니라 “받을 것”(위로)을 다 받았기 때문이다(ὅτι ἀπέχετε τὴν παράκλησιν ὑμῶν 6:24). 여기서 “받을 것을 다 돌려받는다(ἀπέχετε)” 것은 Q 6:30의 “돈을 빌려주되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μὴ ἀπαίτει)”는 예수의 명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34절에 의하면 이런 일은 죄인들 사이에서나 있는 일이다(ἀμαρτωλοὶ ἀμαρτωλοῖς δανίζουσιν ἵνα ἀπολάβωσιν).⁶⁹⁾

한편, 6:24-26와 병행구를 이루는 6:20-22의 축복문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면⁷⁰⁾ 저주문의 대상은 보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Q의 다른 저주문들과 공통된 특징이다. Q의 저주문은 항상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한다. 곧 여기서 부유함은 추상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저주문은 단순히 물질적 소유 여부를 문제 삼지 않는다. 문제는 공동체의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데 있다.⁷¹⁾ Q 6:20-49 전체 담화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 저주문의 부자들, 배부른 자들은 단순히 부를 소유했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이들은 당시 갈릴리 촌락민들의 경제적 고통에 책임이 있는 지배 계층을 표상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6:25에 사용된 γελῶω에서도 포착된다. γελῶω는 구약의 πῖψ의 번역이다(욥 9:23 느 2:19 시 22:7 사 37:32 참조).⁷²⁾ 구약의 용례로 볼 때 25절의 γελῶω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된다. 곧 이 말은 당시 약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지배층에 대한 정치 사회적 저항⁷³⁾을 함축

66) J. Kloppenborg Verbin, *Excavating Q the History and setting of the Saying Gospel*, 175; 또 다른 증거로 G. Theissen, *The Gospels in Context: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in the Synoptic Tradi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06-225. 참조.

67) R. A. Horsley and J. Draper, *Whoever Hears You Hears Me*, 46-60.

68) J. P. Meier, *A Marginal Jew: Rethinking the Historical Jesus*, vol. 3 (New York, London: Doubleday, 2001), 297-332; A. Saldarini, “Pharisees”, *ABD*, vol. 5 (NY: Doubleday, 1992), 289-303 참조.

69) 눅 6:34 “ἐὰν δανήσητε παρ’ ὧν ἐλπίζετε λαβεῖν, ποία ὑμῖν χάρις [έστί]ν 참조.

70) 이에 대한 논의는 박인희, “Q의 민중서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2009), 129-136 참조.

71) H. 마샬, 『누가복음』, 335-336.

72) C. M. Tuckett,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y on Q*, 224-225.

73) 유대종말론이 1세기 유대 갈릴리에 편만하게 수용되었다는 관점에 대해서는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581, 595-597; G. 타이센 & A. 메르츠, 『역사적 예수』, 손성현 역 (서울: 다산클빙, 2002, 1997); A. Y. Collins, “Apocalyses and Apocalypticism”, *ABD*, vol. 1 (1992), 288-292; George W. E. Nikelsberg, *Faith and Piety in*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6:24-26은 Q의 11:37-51의 저주문을 포함한 본문의 다른 저주문들⁷⁴⁾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특별히 당시의 사회 역사적 상황, 특별히 로마와 예루살렘 사제정부, 그리고 헤롯 왕가로부터 가해지는 삼중의 세금으로 인해 가중된 1세기 갈릴리의 피폐한 경제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⁷⁵⁾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그에 대한 저항성은 Q 본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종말론적 분위기의 기저를 형성한다. 최근 1세기 갈릴리 사회상에 대한 연구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사역이 1세기 유대 갈릴리의 정치 사회와 긴밀하게 연관되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⁷⁶⁾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함축된 종말론을 단지 개인적,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던 방식을 넘어 당면한 역사 속에서 발현된 예수운동의 역사성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6:24-26의 저주문은 종말론의 저항적 차원과 동시에 Q 공동체가 별인 용서와 자비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운동과 맞물린다. Q의 주제인 용서와 자비는 실제 공동체 내에서 별인 돌봄과 빛 탕감의 운동을 반영한다.⁷⁷⁾ 이는 삼중의 조세로 피폐해진 갈릴리의 상황 속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상생의 운동으로 구체화된 하나의 역사적 증거로 포착된다. 응당 받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주받게 되는 6:24의 비상식적인 저주문의 내용은 바로 빛 탕감과 상호 호혜의 운동을 촉구하는 Q 공동체의 메시지인 것이다.

4. 나가는 말

Q는 현재 역사적 예수와 초기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문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개별 연구자들은 물론 IQP와 같은 국제적 학회에서 이룬 Q 복원 분야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은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럼에도 마가와외의 중복 문제나 특수 자료 문제는 재구성 분야에서 여전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역설적으로 Q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작용한다.

Early Judaism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참조.

74)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한 저주와 도시민에 대한 반발과의 관련성은 R. A. 호슬리,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276-278, 175-194 참조.

75) R. A. Horsley & J. Draper, *Whoever Hears You Hears Me*, 195-227.

76) 김광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해에 있어서 틀의 전환에 대한 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 (2008), 93-102.

77) 박인희, “Q의 서사적 특성과 Q 공동체”, 『신약논단』 16 (2009), 745-788; R. A. Horsley and J. Draper, *Whoever Hears You Hears Me*, 261-263 참조.

누가복음 6:24-26의 저주문은 이러한 가능성의 한 예를 보여준다. 이 본문이 이 중 전승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군의 연구자들은 이 본문을 Q에 포함시키지 않고 누가 특수 자료나 누가의 편집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이 저주문은 일차적으로 Q의 고유한 문학적 양식에 속하며, 적대자를 상징하지 않는 누가의 편집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Q의 다른 저주문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곧 Q의 저주문들은 당시 삼중의 조세 제도에 피폐해진 1세기 갈릴리 상황을 반영하는 구체적 언어들 사용해서 그 기저에 정치, 종교, 사회적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저항성을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6:24-26의 저주문은 이 저항성을 공유하면서도, 빛 탕감, 상호 돌봄과 관련된 용어들을 통해 Q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 내용을 감지하게 한다.⁷⁸⁾ 곧 하나님 나라 해석에 사회, 정치, 종교적 현실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포함시킴으로⁷⁹⁾ Q의 저항성의 참된 근원은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나라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6:24-26이 Q 본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누가복음 6:24-26은 누가 특수 자료가 아닌 Q 본문으로 재편되어야 그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투고 일자: 2010. 7. 30, 심사 일자: 2010. 9. 13, 게재 확정 일자: 2010. 9. 13)

<주요어>(Keywords)

Q의 종말론, Q 저주문 양식, 하나님 나라, 빛 탕감, 용서.

Eschatology of Q, Woes in Q, the Kingdom of God, Mutual Cancellations of Debts, Forgiveness.

78) 박인희, “Q의 민중서사적 성격에 대한 연구”, 154-167 참조.

79) 김광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해에 있어서 틀의 전환에 대한 평가”, 94.

<참고문헌>(References)

1) 성서 및 일차 자료

- Aland, B. and K. Aland, J. Karavidopoulos, M. Martini & B. Metzger, eds., *Nesle-Aland NOVUM TESTAMENTUM GRAECE*. 27 edition. Stuttgart: Gesamtherstellung Biblia-Druck, 1993.
- Aland, Kurt, *Synopsis Quattuor Evangeliorum*,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1976.
- Danker, F. W., ed.,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2000.
- J. B. Lightfoot & J. R. Harmer, ed., *The Apostolic Fathers, Greek Texts and English Translations of their Writings*. 2nd edition. trans. M. W. Homes. ed. and reviser,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1.

2) Q 관련 참고 문헌

- 김광수,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이해에 있어서 틀의 전환에 대한 평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 (2008), 79-107.
- 김명수, 『큐복음서의 민중신학』, 서울: 통나무, 2009.
- 김명수, 『원시그리스도교 예수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9.
- 김명수, 『초대기독교의 민중생명신학 담론』,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 김명수, “원시그리스도교 Q 공동체와 예루살렘 성전공동체의 관계”, 『신학사상』 137 (2007), 67-96.
- 김형동, “Q 축복 선언/(Q 6:20-34)과 화 선언/눅 6:24-26, Q 11)에 나타난 Q 형성의 신학적 특징”, 『서울 장신논단』 7 (1999), 86-108.
- 김형동, “마가는 Q를 몰랐는가?”, 『신약논단』 15 (2008), 341-376.
-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 『신약논단』 1 (1995), 44-68.
-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 『신약논단』 2 (1996), 7-41.
- 김희성, “축복 선언(마 5:3-12)의 형성사적 고찰(III)”, 『신약논단』 3 (1997), 7-19.
- 김희성, “통전적으로 읽은 산상보훈의 화해명령”, 『신약논단』 8 (2001), 1-36.
- 나요섭,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Q공동체의 자리 찾기: 예수전승과 공관복음의 교회론”, 『신약논단』 7 (2005), 85-103.
- 마샬, H., 『누가복음』,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3, 1978.
- 맥, 버튼, 『잃어버린 복음서: Q복음과 기독교의 기원』, 김덕순 역, 서울: 한국기

- 독교연구소, 1999.
- 박인희, “Q 의 서사적 특성과 Q공동체”, 『신약논단』 16:3 (2009), 745-788.
- 소기천, 『예수말씀의 전승궤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소기천, 『예수말씀복음서 Q개론: 잃어버린 지혜문학 장르의 전승자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 슈바이처, A., 『예수의 生涯 研究史』, 허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951.
- 슈바이처, E., 『마태복음』, 국제성서주석,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86, 1976.
- 정양모(역주), 『마태오 복음서』, 왜관: 분도, 1990.
- 정양모(역주), 『루가 복음서』, 왜관: 분도, 1983.
- 타이센, 게르트, 『원시그리스도교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김명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1983.
- 타이센, 게르트, 『예수운동의 사회학』, 조성호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1978.
- 호슬리, 리처드 A., 『예수운동, 사회학적 접근』, 이준모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 호슬리, 리처드 A., 『예수와 제국: 하나님 나라와 신세계 무질서』, 김준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4.
- 호슬리, 리처드 A.,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박경미 역, 서울: 이대출판부, 2007.
- Albertz, R., *A History of Israel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John Bowden, trans., John Knox Press, 1994.
- Catchpole, David R., *The Quest for Q*, Edinburgh: T&T Crack, 1993.
- Dibelius, Martin, *From Tradition to Gospel*, repressed 1982, Essex: the Attic Press, 1935.
- Fleddermann, Harry, *Q: A Reconstruction and Commentary*, Leuven, Paris and Dudley: Peeters Publishers, 2005.
- Harnack, Adolf von., *The Sayings of Jesus, the Second Source of St. Matthew and St. Luke*, London: Williams & Norgate, 1908, 1907.
- Hoffmann, Paul, “Mutmassungen uber Q zum Problem der Literarischen Genese von Q”,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Horsley, Richard A., ed., *Oral Performance, Popular Tradition, and Hidden Transcript in Q*, Leiden. Boston: Brill, 2007.
- Horsley, Richard, A., and Draper, Jonathan, *Whoever Hears You Hears Me*,

- Prophets, Performance, and Tradition in Q*,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 Jacobson, Arland, "Literary Unity of Q", *JBL* 101 (1982).
- Jacobson, Arland, *The First Gospel*, California: Polebridge Press, 1992.
- Kelber, Werner, *The Oral and the Written Gospel*,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3.
- Kirk, Alan, "Love your Enemies, The Golden Rule, and Ancient Reciprocity", *JBL* 122 (2003).
- Kloppenborg, John S., "Formation of Q and Antique Instructional Genres." *JBL* 105 (1986).
- Kloppenborg, John S., *The Formation of Q: Trajectories in Ancient Wisdom Collection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 Kloppenborg, John S., *Q Parallels Synopsis Critical Notes & Concordance*, Sonoma: Polebridge Press, 1988.
- Kloppenborg, John S., "Literary Convention, Self-Evidence and the Social History of the Q People", *Semeia* 55 (1992).
- Kloppenborg, John S., *The Shape of Q: Signal Essays on the Sayings Gosp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Kloppenborg, John S., *Conflict and Invention: Literary, Rhetorical, and Social Studies on the Sayings Gospel Q*, Valley Forge,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Kloppenborg Verbin, John, *Excavating Q: The History and Setting of the Saying Gospel*, Edinburg: T&T Clark, 2000.
- J. Kloppenborg, M. W. Meyer, S. J. Patterson and M. G. Steinhauser, *Q Thomas Reader*, Sonoma: Polebridge Press, 1990.
- Koester, Helmut, "One Jesus and Four Primitive Gospels", James M. Robinson and Helmut Koester, eds., *Trajectories through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Lindemann, Andreas, "Die Logienquelle Q, Fragen an eine gut Begründete Hypothese",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Lührmann, Dieter, "Q in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J. Kloppenborg, trans. and ed., *The Shape of Q*,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69.
- Manson, T. W., *The Saying of Jesus*, London: SCM Press, 1949.

- Meyer, Marvin, *The Gnostic Discoveries the Impact of the Nag Hammadi Library*, New York: HarperSanfrancisco, 2005.
- Neiryck, Frans, “The Symbol Q”, *ETHL* 54 (1978).
- Neiryck, Frans, “Recent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Q”, *Logia: les paroles de Jésus - the Sayings of Jesus*, *BETL* LIX,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2.
- Neiryck, Frans, “The Reconstruction of Q”, A. Lindemann, ed., *The Saying Source Q and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Piper, Ronald, *A Wisdom in the Q-Tradition the Aphoristic Teaching of Jesu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eed, Jonathan, “The Social Map of Q”, J. Kloppenborg, ed., *Conflict and Invention*, Valley Forge,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5.
- Robinson, James M., “LOGOI SOPHON on the Gattung of Q”, James M. Robinson and Helmut Koester, eds., *Trajectories through early Christianity*,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 Robinson, James M., “The Critical Edition of Q”,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Robinson, James M., *The Saying Gospel Q*,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5.
- Robinson, J. M., P. Hoffmann, and J. S. Kloppenborg, eds., *Critical Edition of Q: A Synopsis Including the Gospels of Matthew and Luke, Mark and Thomas with English German and French translation of Q*, Minneapolis: Fortress Press,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0.
- Robinson, J. M., P. Hoffmann and J. S. Kloppenborg, eds., *The Saying Gospel Q in Greek and English with Parallels from the Gospels of Mark and Thoma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 Sato, Migaku, *Q und Prophetie*, Tuebingen: J. C. Mohr, 1985.
- Schröter, Jens, “Die Frage nach dem historishen Jesus und der Charakter historischer Erkenntnis”, A. Lindemann, ed., *The Sayings Source Q and the Historical Jesu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2001.
- Streeter, Burnett Hillman, *The Four Gospels: A Study of Origins, Treating of the*

- Manuscript Tradition, Sources, Authorship, and Dates*, London: Macmillan & Co Ltd., 1961. 1924.
- Theissen, Gerd, *The Gospels in the Context: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on the Synoptic Tradition*, Linda M. Moloney, tr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Tuckett, Christopher M., *Q and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Studies on Q*, Edinburgh: T&T Clark, 1996.
- Tuckett, Christopher M., “The Scripture and Q”, *The Scriptures in the Gospel*,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 Vaage, Lief E., *Galilean Upstart, Q and Cynicism Jesus according to Q*, Valley Forge,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 Vassiliadis, Petros, “The Order of Q”, *Logia: les paroles de Jésus - the Sayings of Jesus*, BETL LIX,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2.

<Abstract>

On the Study of Luke 6:24-26 for Q Reconstruction

Dr. Inhee Park
(Ewha Womans University)

Recently, Q has been emerging as the most influential document for the history of Jesus and the earliest Christianity. After the reconstruction of Q was accomplished by IQP as well as by the individual scholar, Q is insisted among Q experts as being “a gospel” not just a saying collection. Though Q is a hypothetical document, the argument for its exist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etic evidences such as the verbatim agreement and the common sequence found in both Luke and Matthew. It is in fact a reconstructed completion of around 240 verses which include various literary forms such as small narrative, parable, prophetic sayings, dialogue, and debate. Before the reconstructed Q became available, it was rarely treated as a text.

Despite the marvellous achievement in the reconstructing field, there is, however, no final form of Q. Generally, Q has been reconstructed by the agreements on the double tradition of Luke and Matthew, and by following the Lukan order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160 years' history of Q. But there are still unsettled questions such as the Markan doublet or Luke and Matthew Sondergut that should have influenced the extent of Q, whether by reducing or extending it.

Specifically, the Lukan Sondergut 6:24-26 has been constantly debated as to whether it comes from Q. Even though it is not in the double tradition, there are some evidences to support its derivation from Q. First, it shows the characteristic of the Q with the peculiar literary form of woe. Second, the 6:24-26 is linked with other woes of Q (Q 11:42-52) and share the similarity in both content and form. Third, those two evidences establish a literal and theological unity for the whole text. Revealing the resistance against the injustice of the Jerusalem rulers, their scribal retainers, and the pharisees, those woes shape the ethos of the oppressed in 1 C., Galilee which corresponds with the social context where the Q had been produced. Accordingly, Luke 6:24-26 is suggested to be included the Q reconstruction in its own right.